

……▶ 이달에 만난 사람

●●● 박만후 과학시스템 사장

쌀 가격보다 우수한 성능에 더 관심을



▲박만후
전)전호부회장 상무
전)과학축산(주) 공동대표
현)과학시스템 대표이사

2004년 10월 25일로 과학시스템이 창립2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양계산업의 성장과 고락을 함께한 과학시스템의 박만후 사장을 만나 기자재 산업을 통해본 양계산업의 과거와 미래란 주제로 인터뷰를 하였다.

Q 과학시스템이 25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토하드립니다. 25년간 과학시스템은 양계업과 함께 성장해오면서 새로운 변화를 두드려온다고 생각하는데, 양계 기자재 분야에서 본 눈에 띈 변화라면?

1979년 10월 과학시스템을 창업할 당시에는 우리나라 양계산업은 아직 규모가 영세하여 신란계 육계 모두 3,000~4,000수 정도면 중간 규모는 되었으나 이제는 50,000~100,000수는 돼야 전업 또는 기업농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당시 기자재라면 연탄을 이용한 삿갓육추기에 폐비닐을 녹여 만든 수동식 원통급이기, 급수기 등이 육계와 종계 등 평사 사육시설의 대부분이었고, 산란계에는 트럽(홈통)식 플라스틱 모이통과 물통을 갖춘 2단 케이지가 주종을 이뤘습니다.

밤을 세워 연탄불을 갈아주고 수

시로 사료통을 채워주며 물을 길아주었으나 지금은 가스육추기나 온풍기, 자동급이기 와 다플급수기가 이를 대체하고 자동환기시스템이 갖추어진 계사 시설이 기본이 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직립식 케이지 시

스템은 산란케이지

의 기본이 됐고 입란능력 1~2만개의 소형부화기로 부화를 하던시대에서 지금은 5~10여만개 용량의 대형 자동부화기로 1회 수십만수씩을 부화하는 체제로 변화됐습니다.

드럼형 탈모기로 털을 뽑던 도계시설은 시간당 수만마리를 위생 처리하며, 육계의 대부분은 계약생산하는 체제로 발전했습니다.

지난 25년의 양계산업 발전과정에서 과학시스템은 언제나 한발 앞서 각종 최신 시설을 세계 각국에서 발굴해 우리 양계업계에 공급함으로써 국내 양계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 해왔습니다. 1980년 초 가스육추기를 처음으로 대량 보급함으로써 밤을 새워 연탄을 같아야 했던 연탄 육추기 시절을 마감시켰고, 이어 현대화된 자동 도계 처리시스템을 최초로 도입, 현대식 도계시설보급에 앞장섰으며, 80년대 중반부터 체인급이시스템을 종계업계에 보급함으로써 종계 자동화 시스템에 새바람을 일으킨바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훤의 속도 조절로 환기량을 조절할 수 있는 멀티휠을 도입, 다단계 환기량 조절이 필요한 육계사등 계사 환기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으며 1980년 말 올인-올아웃이 가능한 피터사임 부화기를 공급함으로써 획기적인 부화율 개선과 우량 병아리 생산에 새로운 좌표를 제시했으며, 90년대 초 국내 최초로 직립식 산란케이

지를 도입, 직립식 케이지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어 자동난상시스템을 보급, 종란의 자동집란 시대를 앞당겼으며 90년대 말에는 컴퓨터 환기콘트롤시스템을 종계와 육계업계에 최초로 도입 적용하였고, 2000년에는 육성종계와 육계의 컴퓨터

체중측정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 보급함으로써 종계의 체중조절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등 실로 양계부문의 기계화, 자동화 컴퓨터화등에 언제나 앞장 서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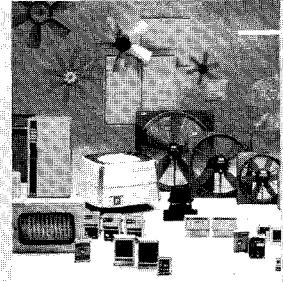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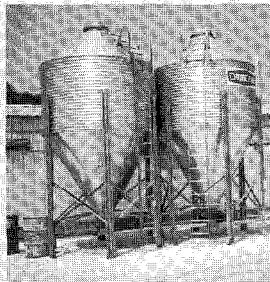
Q 기자재 난입도 여려해 불행을 맞고 있다는 데 그원인과 난입 기자재를 두로하는 이유는?

WTO체제하에서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형편상 우리 농업만을 보호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더욱이 FTA(자유무역협정)국가들이 점차 늘어날 것이 대세이므로 양계산물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증가 속도보다 수입증가 속도가 빠르면 국내의 닭고기와 계란 생산은 정체하거나 후퇴하기 마련입니다.

최근 수년간 양계산업이 위축되면서 기자재에 대한 수요는 종전의 절반이하로 감소됐고 이에 따라 기자재 업계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다행히 질병 등의 요인으로 계란과 닭고기 생산량이 감소되고 또 수입이 제한을 받으면서 산물 가격이 지난 몇 달 동안 회복된 상태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상태는 오래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농가들은 양계장 증축을 자제하고 있으므로 기자재에 대한 신규 수요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동에서 자동, 추축에서 컴퓨터 제어, 농업-전업에서 전업-기업양계로



사료, 약품 원료, 원종계 등 중요한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양계업은 최근 농장 인력 조차 1/3이상 외국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들 수입재료를 이용해 만드는 양계산업은 사실 1차산업이라기 보다는 가공업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지 모릅니다.

외화를 들여온 재료로 계란과 닭고기는 생산해야 하는 우리는 얼마나 싼 기자재를 구입해서 계

양계산물 수입증가로 국내생산은 한계 기자재는 가격보다 생산성을 먼저 생각해야

란과 닭고기를 생산하느냐에 메달리기 보다는 얼마나 효율이 높은 기자재로 생산지수와 산란수 및 부화율등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원가를 낮추며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며 최대한 국제 경쟁력을 만들어 수입양계산물을 막을수 있어야만 합니다. WTO 와 FIA 체제하에서는 국제 경쟁력을 잃으면 시장은 결국 수입 양계산물에 잠식당하게 마련입니다.

이 점이 과학시스템이 항상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자재만을 엄선해서 공급하는 이유입니다.

비록 가격이 높더라도 생산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고 생산원가를 낮출수 있는 제품만이 무한 경쟁 하에서도 경쟁력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Q 심한 불행을 겪고 있는 양계업계와 기자재 업체에 좋은 해결책은 없는지요?

모든 원자재를 수입해서 사용하면서 질병 위험 까지 큰 국내 양계업 여건으로는 미국이나 브라질 등의 닭고기와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수출 보다는 양계산물의 수입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병 차단이 급선무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육계는 물론 산란계도 올인 올아웃 시스템을 채용하여 질병을 차단해 간다면 커다란 도움이 될것입니다. 정부가 휴경하는 논과 밭에 양계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한다면 막대한 휴경 보상비도 절감할수 있고, 질병 차단에도 도움이 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재 업계는 수년전부터 수출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일부 동남아 및 일본으로 수출이 이루 어지고 있으나 아직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시설들을 수용할 태세가 미흡한 중국 시장은 아직 시간이 필요하며 계속 위축돼 가고 있는 일본 양계시장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 기자재 산업 위축은 당분간 필연적이며 이는 규모축소와 업체간의 인수합병 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Q 외국 양계박람회와 농장 등을 100회 이상 다녀온는데 외국 양계산업의 변화추세와 우리 양계산업의 변화 방향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럽에서는 2009년부터 이제까지 사용하던 모든 케이지는 철거돼야하며 이를 대체할 대안(에이비어리)케이지가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안케이지는 동물보호론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질병

발생율이 높고 오란

이 많으며 산란수는 떨어지는 등 상당한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육 규모의 대형화 역시 세계적인 추세인 듯 합니다. 미국에서는 산란계사 크기를 18m 폭에

180m 길이로 건축하여 동당에 200,000수 이상을 수용하는 등 계사의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고 육계사 역시 16m × 120m 규모로 대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를 통해 단위 면적당 시설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이는 환기등 인공적인 환경 제어가 계사의 규모에 관계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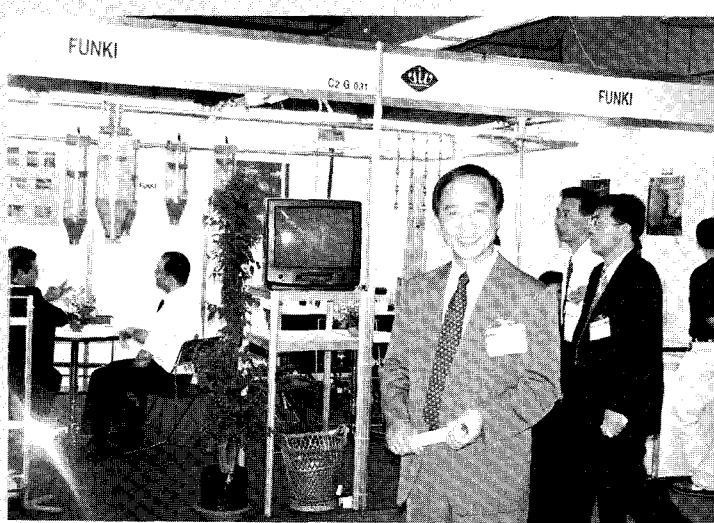
평당 육계를 70~90수씩 사육하는 고밀도 사육도 유럽에서는 일반화 돼있고 급이·급수·환기·점등·산란수 카운팅, 체중측정 등 일체의 관리를 자동화와 컴퓨터화 해 생산성 향상과 인력 절감 및 즉각적인 경영분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계약주체 사무실에서 계약

농장의 일체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 분석 점검하며 그날 출하에 필요한 체중의 닭을 골라 출하계획을 잡는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인 우리는 농장부문의 인프라 구축 미흡으로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생산성 향상과 농장 인력난 해결에 컴퓨터를 이용한 농장 관리는 피할수 없는 대세입니다.

생산지수 250의 육계농가, 수당 130개 종란생산으로 만족하는 종계 농가, 몇 년에 한번씩 질병을 피해 를 입는 산란계 농가로서는 갑싼 수입산물과 경쟁하기란 어렵습니다.

비록 초기 투자가 높더라도 생산성 극대화에 총력을 기우리는 유럽형 양계업이 좋은 교훈이 될것입니다. (정리 | 김종준 과장) [창간기]



▲외국 박람회장을 참관하는 박만호 사장